

올해 교육계획 기본 방향 안내

도교육청, 교육계획 설명회
미래교육 강화·배움 지원
문·예·체 프로그램 내실화
세계시민 양성 등 언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초·중·고 특수학교장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도교육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숙 교육국장이 올해 업무계획 기본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수업 혁신과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교육 실현 △학생 기본권인 배움을 지원하고 삶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력 신장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생태·환경, 사회적 책임,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세계시



9일 전주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 전북교육계획 설명회 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설명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민 양성 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청 공식 유튜브(<http://www.youtube.com/tvdo1601>)를 통

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서 교육감은 "낯은 관행을 깨뜨리고 우리부터 혁신해서 교실혁명, 수업혁신, 행정혁신, 인사혁신을 이뤄내겠

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전북교육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귀중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

서거석 교육감, 김형학 소방위에 감사장
김 소방위, 세병호에 빠진 중학생 구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주시에 에코시티 내 세병호에 빠진 학생들을 구조한 남원소방서 소속 김형학 소방위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은 당시 구조된 중학생 2명과 학부모, 학교장 등이 함께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김 소방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소방위는 비번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산책 중 물에 빠진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구명환을 이용해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학생 1명을 구조했다. 그러다 주변 얼음이 깨지면서 김 소방위도 호수에 빠졌으나 구조하



지 못한 학생이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차가운 물 속에서도 해당 학생을 껴안는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김 소방위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물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면

서 “소방관으로서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제 어디서나 소방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물에 빠진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해준 김형학 소방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김 소방위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우리 학생들도 따뜻하고 성숙한 마음을 지닌 어른으로 커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첨단 바이오기술, 美 CES 2023서 '주목'

전북대, 혈전탐지 이미징시스템·저탄소 한우검증 플랫폼 등 선보여
세계 최대 바이오기업 '관심 집중'... 타임·AP 통신 등 외신에도 소개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인 미국 CES 2023에서 전북대학교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전북대 LINC3.0(융합(단장 송철규)이 참가해 '혈전탐지 이미징 시스템'과 '저탄소 소고기 검증 플랫폼' 등 2건의 혁신기술을 전시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올해 CES에는 세계 174개국에서 3,100여 기업이 출품작 26개를 합친 면적의 공간에 혁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다. 10만여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먼저, 송철규·이동원 교수가 주도한 '형광물질을 이용한 혈전 이미징 시스템'은 뇌졸중·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혈전(피떡)을 신속하게 탐지해 내는 포터블 영상기이다. 현재 하버드 의대와 손잡고 공동 연구 개발 중이다.

이 혈전 탐지 기술은 미국 UCLA·캐나다 맥길대, 세계 최대 바이오 연구기업인 미국 BD사이언스와 일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이동원 전북대학교 교수가 혈전탐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OMRON 등 글로벌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찾아와 “병원 암실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은 데다 휴대도 가능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다.

또 바이오웰스 투자회사들은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상용화는 언제

가능하나” 등 문의가 줄을 이었다. 한편, 이날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위원장)과 거점국립대 총장단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어, 이학교 교수팀은 육우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플랫폼 '카우카본'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소 한 마리가당 탄소발자국을 측정해 탄소 저

감을 실현한 농가에 이를 탄소 크레딧(배출권)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이 카우카본은 타임·US뉴스·AP 통신 등 20여 매체에 잇따라 보도될 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기업과 투자회사의 발길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졌다. 한국의 현대오일뱅크와 미국 환경개선설비 홀로컴퍼니, 친환경 의류생산 로빈케이 등은 카우카본 플랫폼을 통한 탄소크레딧 구매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홍콩 국영투자회사, 일본 미쓰이스미모토은행 미국 딜로이트 등도 부스를 둘러보고 개별 투자 상담을 받았다. 또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7일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직접 찾은 김동원 총장은 “CES는 구글·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아이디어가 통풍되는 전세계의 혁신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라며 “우리 대학의 혁신 기술이 글로벌 투자회사와 관련업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끈 만큼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전북대’의 도약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 안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4월 원서접수·6월 필기시험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에는 임용시험 일정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는 8월, 필기시험은 10월 28일, 면접시험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향후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사 공개·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4월,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7월, 합격자 발표는 8월 중 진행된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9급 경력경쟁시험 원서접수는 8월, 필기시험은 10월 28일, 면접시험은 11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지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은 향후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관찰 방향 무관, 같은 색 반사 가능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미세주름구조 도입 광결정 필름 개발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공대 고분자나노공학, 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이 미세주름구조를 도입, 관찰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을 반사할 수 있는 광결정 필름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공학분야 세계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IF=32.086, 상위 2.1%) 2023년 1월 5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결정 소재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일정한 간격을 통해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시키는데, 기존 광결정 필름은 관찰자의 방향에 따라 구조 간격이 다르게 관찰돼 반사시킨 빛의 색깔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이러한 광결정 필름의 한계에 주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1미터) 크기의 미세한 주름구조를 갖는 고분자 탄성체 기판을 이용했다. 광결정 페인트를 해당 기판위에서 전단코팅 및 광경합의 연속공정으로 제작해

탄성체 기판의 미세주름구조를 광결정 필름에 동일하게 전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관찰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을 반사하는 광결정 필름의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된 미세주름구조 광결정 필름은 다양한 패턴의 주름구조가 형성된 위조방지 필름, 단색광 반사 필름 등 스마트 광학 필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임석인 대학원생은 “자연모사공학을 기반으로 기존의 광결정 필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사필름을 개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기술의 연구에 정진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임 대학원생은 교육부의 우수대학원생으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우수기업들과 소통 나섰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 졸업생 채용 연계 위해 기업현장 방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졸업생 채용 연계 위해 도내 우수기업과의 소통에 나섰다.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일행이 졸업생 채용 연계 일환으로 도내 기업 ㈜R E&I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 총장 일행은 지난해부터 (주)오디텍 비너비(주), (주)가온셀, (주)R E&I 등 도내 기업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의 사업 내용 및 향후 채용

계획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총장은 도내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매력적인 인프라에 대해 강조하며,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도내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도내 기업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

고 우수 인재가 우리 지역에 취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알자리플러스센터는 2022년 고용노동부 대학알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 학으로 선정돼 지역·산업·대학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청년 취업 매칭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철회하라”

도내 교육단체들, “학생 참여위 조항 삭제, 인권보장 정책 후퇴”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지위취취시민연대 등은 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입법예고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듣는’ 조항을 ‘볼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학생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볼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심의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을 조례에서 명문화 하더라도 그것은 발췌된 인권이 될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학

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했다.

또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했다. 학생참여위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주체인 교육청이 권리의 주체들에게 직접 학생인권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학생의회는 기능 중 하나로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제안이 있으며, 분과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규정된 학생참여위와 달리 학생의회에서는 학생인권 보장 역할이 축소될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참여위는 위원 50명을 모두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하며, 소수자의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의회의 경우 학생회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인원이 40명이고 도교육청의 공개모집이 1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